

전라남도교육청, 혁신학교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 추진

혁신학교, 폐지가 아닌 학교자치 실현 위한 발전적 계승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 학교자치·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 4기 발전과제 첫 번째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남의 모든 학교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혁신학교 운영 12년은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중심

에 놓는 학교문화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학생자치 문화 확산 등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실천의 과정이었다.

민선 4기는 이러한 성과들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스며들어 학교 운영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공모는 진행하지 않는다. 오

히려 이를 더욱 확산하고 발전시켜 민주적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학교자치와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모색한다.

그동안 혁신학교의 철학과 중점과제들이 학교혁신 일반화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 정책 전반과 모든 학교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다.

민선 4기는 도 교육청 각 부처와 학교가 미래교육 방향에서 이를 재구성하여 정책 수립과 학교 운영의 기저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지정 기간 유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더불어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

AI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민주(세계) 시민교육 △무학년 주제 탐구 활동 △독서 기반 토론 교육 △삼삼 연계 마을 교육과정 △지역 연계 진로 교육 등)를 학교가 스스로 발굴하여 제시하고 실천하며 미래학교의 모형을으로서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학교혁신 가치 확산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자율사업선택제 확대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배움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돼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학생 수를 유지하고 지역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원도심과 농어촌 작은 학교 정책들을 강

화하여 학생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작은 학교, 지역과 상생하는 작은 학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지난 12년의 학교혁신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4기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교자치와 소통·협력·연대의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을 전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신뢰와 응원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강진 초·중학생 위한 다산 '아학편' 쓰기 교재 발간



강진교육지원청은 강진군 문사고전연구소와 협업하여 '다산 아학편 쓰기 교재'를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종으로 발간하였다.

'아학편'은 강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다산 정약용이 당시 대표적인 한자학습서인 '천자문'이 체계적인 글자의 배열과 초학자

'아학편' 통한 다산 정신 기르기

를 배려한 학습의 단계성이나 난이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 및 체계상의 결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한자 교재이다. 고전문사연구소 양광식 선생님과 강진교육지원청은 한문 글자 공부를 바라는 학생들이 보고 쓰기에 편하도록 음과 뜻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되 강진의 방언(사투리)도 함께 표기하여 강진의 얼과 다산의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 보급하여 특색활동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인 '아학편' 교육을 위해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다산 '아학편'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한자교육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아학편'

교육방법에 대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광희 교육장은 "한자 학습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어휘력을 향상하고 아울러 아학편쓰기를 하면서 사의재 주모의 대학자를 대하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귀양인에게까지 배움을 청하는 강진읍의 첫제자들, 귀양과 원망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뜻을 제자에게 잊고 또 기록으로 남겨 500여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다산의 정신을 강진의 학생들이 잇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강진교육지원청은 '다산 이천자 아학편 해설집'을 도서로 출간하고 E-book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아학편' 쓰기 교재를 활용하면서 글자의 뜻과 해설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신안신의중, 세 번째 국제교류 수업 진행



신안신의중학교는 2학기에도 학생들의 국제적 시각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Sekolah Sultan Alam Shah 중등학교 학생들과 세 번째 국제교류 수업을 진행하였다.

9월 13일, 신안신의중 1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Sekolah Sultan Alam Shah 1학년, 3학년 한국어반 학생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주제로 영어와 한국어로 발

표하며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날 수업은 신안신의중 한영일 진로 교사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말레이시아로 파견된 이은숙 한국어 교사가 자체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청 주관 온라인 국제수업은 다수 있었지만, 교사와 학교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는 수업은 드문 일이다.

두 학교는 올해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학년 별로 날짜와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교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문화에 대해 학습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각 나라의 학교생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음식, 운동, 관광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안=이명주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2022년 섬진강 과학스쿨, 가을' 운영

과학에 관심 있는 관내·외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오는 17일 재단 시청각실 및 곡성문화체육관에서 '2022년 섬진강 과학스쿨, 가을'을 운영한다. 과학에 관심 있는 관내·외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2022년 섬진강 과학스쿨, 봄'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과학과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2022년 섬진강 과학스쿨, 가을'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국립과천과학관과 협조하여 과학

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과학원리체험존도 운영할 계획이다. 섬진강 과학스쿨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을 주민들이 쉽게 접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강연과 과학원리체험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은 곡성에 거주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탁환 소설가가 맡았다. 특별강연은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후위기와 우리가 할

일', 이명현 천문학자의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산책'으로 구성된다. 김탁환 작가와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이명현 천문학자의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과학을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하고, 기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보는 수 있다"며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국립과천과학관의 체험키트들을 곡성에서 만나보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모두에게 너무 좋은 기회이다."고 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여수여양중 '갈색 컬러데이 사복 입는 날' 행사

교사·학생 함께 참여 진행

여양중학교가 지난 13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갈색 컬러데이 사복 입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에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가을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교문을 들어섰다.

학생회에서는 이번 사복 데이는 갈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미션을 주었는데 학생들은 저마다 갈색 정장부터 옷, 바지, 머핀, 모



자, 양말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패션 감각을 마음껏 자랑하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